

세계인들은 왜 한국을 주목하는가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머니S 10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지난 11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언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듀오링고는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2주 동안 신규 한국어 학습 신청자가 영국에서 76%, 미국에서 40%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어 학습자는 총 790만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진짜로 알고 싶어한다(사진 출처 YTN 뉴스 캡처)

한류가 대세다

한국의 문화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은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10월 14일자 세계적 특필 특필 비블즈가 미국의 팝음악계를 점령하며 영국문화가 몰릴 듯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사용했던 ‘The British Invasion’이라는 어구 대신 ‘The Korean Invasio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문화지배를 받았던 때를 벗어나 이제는 소프트파워의 강국이 됐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 BBC방송은 ‘오징어 게임 - 한국 드라마 중독의 증가(The rise of Korean drama addiction)’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조명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오징어 게임’이 한류의 일부분이라고 평가하면서 K-팝, 뷰티, 패션, 음식 등에 이르기까지 한류는 대세라고 보도했다.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한 문화국가였고, 금동미륵보살상의 우아한 미소와 고려 청자와 이조 백자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이다. 영국의 런던대 아시아-아프리카대학(SOAS·소아스대)에서 한국 미술사 강의하는 살렛 홀릭 교수는 “한국 미술은 관람자가 작품에 개입했을 때 만나는 견고한 아름다움이 있다”며 우리 문화의 은근과 끈기를 간접적으로 극찬하였다.



김정빈의 소설 단(丹)

소설 단(丹)에 나오는 오복성 이야기

198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김정빈의 소설 단(丹)에는 권태훈 응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전문으로 밝힌 내용이 있다. 하늘에 오복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오복성이 우리나라를 1950년대부터 비치고 있다면서 오복성이 비추면 세계 강국이 된다고 하였다. “전문에 오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복성이 태방에 비친 뒤로부터 180년 동안 미국은 세계의 강국이 됐어요. 태방이 미국입니다. 그 오복성이 그 뒤에 다시 일본쪽에 비쳤습니다. 그때는 약 삼 분지 일 정도가 비쳤었지요. 그때부터 일본은 명치유신을 거쳐서 국세가 지금 질정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위에 비쳤어요. 이미 30년 전입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직렬

취할이었어요. 이번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지구대파멸의 조짐이나 어쩌니 하는데 우습지요. 정기스칸이 나기 30년 전에 오성이 그쪽에 휘류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스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휘류는 큰 테두리 속에 오성이 겨우 모인 형태였지만, 이번 우리나라에 비친 것은 일직선상에 질서정연하게 비친 것이요. 이게 길조면 길조였지 왜 흉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예언된 한민족 이야기

산) 공원의 명치릉(明治陵) 부근에서 자신의 일생을 갈것 짓게 만든 동포와 우연한 만남을 가졌다. 그로부터 천리(天理)와 천명(天命) 등 주역(周易)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듣게 되었다. 1945년 5월 평양 제철소 전권 소장으로 부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였지만, 마음을 바꾸어 평양에 가지 않고 곧장 경상남도 함천군에 있는 해인사를 찾아가다. 해인사의 암자에서 역리학(易理學)을 공부하여 문리(文理)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암자 생활은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4개월 만에 끝났지만, 바로 이 시기는 역리학에 관한 이론적·철학적 기초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간이었다. 이후 경상북도 봉화군 일대에서 공부를 이어나갔다. [중략] 일본에

성경에도 한국이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노아의 방주로 유명하다)가 자신의 세 아들에게 장래일을 예언하는 중에 황인종의 조상인 셈이 가장 잘될 것이라고 하였다. “가나안은 匪呪(저주)를 받아 그兄弟(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願(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讚頌(찬송)하리도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아벳을 昌大(창대)케하시라 셈의 帳幕(장막)에 居(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願(원)하라 하였더라(창 9:25-27)”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면 아벳 또한 셈의 장막(울타리)에 거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그 예언대로 황인종, 한국과 중국이 소프트파워와 IT로 세계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아담이 자신의 12 아들에게 예언한 것을 참고하면 우리 한민족이 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支派(지파)같이 그 百姓(백성)을 審判(심판)하리도다 단은 길의 뱀이요 捷徑(捷徑)의 毒蛇(독사)라리도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 者(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도다 여호와여, 나는 主(주)의 救援(구원)을 기다리나이다(창 49:16-18)” 아담이 12 아들 중 단에게 백성들을 심판할 심판권을 주고난 후 자신도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의 후손에서 인류를 심판할 구세주가 나온다는 축복의 예언이다. 여기서 단은 우리 조국인 단군왕검을 말한다.

위의 여러 예언을 종합하면 한민족 중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여 엄청난 축복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에 따라 우리가 전 세계에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세주의 축복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승리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7>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없다”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려면 나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버리고 있어야 하는 고대로 나를 의식하여야 의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모해 주시는 층이 있는 것이다.

어 깊이 빠져 있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마귀의 영이 주장하면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주장하는 경지에 들어가면 시간의 흐름을 모르는 것이다. 한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 층은 24시간 내내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는 생각

지금 목상해 볼 성경 예언

다니엘서 12장 1-9절

그 때에 네 民族(민족)을 護衛(호위)하는 大軍(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患難(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開國(개국) 이래(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患難(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百姓(백성) 中(중) 무릇 冊(책)에 記錄(기록)된 모든 者(자)가 救援(구원)을 얻을 것이라 - 「다니엘 12: 1」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者(자) 中(중)에 많이 깨어 永生(영생)을 얻는 者(자)도 있겠고 羞辱(수욕)을 받아서 無窮(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者(자)도 있을 것이며 智慧(지혜) 있는 者(자)는 穹蒼(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者(자)는 별과 같이 永遠(영원)토록 비취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看守(간수)하고 이 글을 封緘(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往來(왕래)하며 知識(지식)이 더하리라 - 「다니엘 12: 2-4」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江(강) 이변(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江(강) 저변(편) 언덕에 섰더니

그 中(중)에 하나가 細麻布(세마포) 옷을 입은 者(자) 곧 江(강)물 위에 있는 者(자)에게 이르되 이 奇事(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細麻布(세마포) 옷을 입고 江(강)물 위에 있는 者(자)가 그 左右(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向(향)하여 永生(영생)하시는 者(자)를 가리켜 泅泅(맹서)하여 가로되 만드시 한 때, 두 때, 만 때를 지나서 聖徒(성도의) 權勢(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 「다니엘 12:5-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主(주)여 이 모든 일의 結局(결국)이 어떠한지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 않다 大抵(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看守(간수)하고 封緘(봉함)할 것이니라 - 「다니엘 12: 9」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경은 비단 기독교인들만의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일독해야 하는 필독서지만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워 금방 지루해져서 이내 책을 덮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예언, 그리고 도덕적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예언에 있다.

성경의 권위와 가치는 예언에 있으니 예언을 성경에서 제한하면 평범한 역사책이나 도덕 교과서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인류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없고 길 잃은 배가 캄캄한 밤 태풍을 만나 표류할 때 방향을 알리는 등대처럼 어두운 마귀 세상을 뚫고 광명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길잡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전략서
예언은 하나님이 마귀와의 전쟁을 벌일 때의 전략이자 인봉한 비밀 문서이다.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못 깨닫고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지만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인봉해 두라고 하신다.
“또 우리에게 더 確實(확실)한 豫言(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燈(등) 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셋째 날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注意(주의)하는 것이 可(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經(경)의 모든 豫言(예언)은 私私(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豫言(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聖靈(성령)의 感動(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19-21)”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지창룡의 오복성 예언

조희성 구세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1983년도 대만에서 열린 역술학회에 참가한 지창룡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 대회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서 광이 벌써 30년전부터 비치가 시작됐다. 오복성이 미국에 비칠 때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다시 그 오복성이 일본에 비치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그 오복성이 30년전부터 한국을 강하게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엄청나다. 앞으로 한국이 세



지창룡 박사 사진 출처 일간조선

계 제일의 국가가 될 것이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당시 역술학회에 참석하였다는 지창룡씨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창룡은 경기도 시흥에서 출생 후 군자동 구지정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군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공업계통의 학교를 졸업하고 가와사키(川崎)에 있는 공장의 용광로 책임자로 일하였다. 귀국하기 직전 모모야마(桃

구세주 예배 말씀집

6

신간서적
승리재단 서구점

구세주 예배 말씀집 5

구세주 예배 말씀집 6

2001년 3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277쪽 / 분량보통

- ▶ 구세주 예배 말씀집 6집 펴본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깊이도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음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기신 하나님께서 분신으로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승리제단 식구들부터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영생을 하게 되며,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영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 만민들이 영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반드시 그날에 영생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